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하는가

빌립보서 3:5-14

정운돈 목사님

현장복음메시지 18과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가 하는 이야기다. 내가 현장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꼭 다락방도 하고 지교회도 하는데, 처음 갔을 때 복음편지, 새생명새생활, 현장복음메시지를 바로 하지 않는다. 기도하다가 그 현장, 그 상황에 맞는 메시지, 성경 메시지를 한다. 그러다가 내 소원이 있는데, 그분들이 훈련이 되어 기경이 되면 무슨 씨를 뿌리더라도 다 크게 된다. 사과 씨를 뿌리면 사과가 나오고 그 전에 그래서 기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3년 동안 우리 교회에 다니셨던 분, 은행에 다니시는 분과 오늘 점심 때 말씀을 나누었다. 원래 내가 점심 때, 저녁 때 돌아가면서 부부 다락방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분을 만나서 지난번에 창세기 1장을 설명해 줬더니,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 지금 믿어지네요." 3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것이 안 믿어졌다는 것이다. 덮어놓고 믿으라 하면 믿어지는가. 안 믿어진다. 하나님은 맹신을 원하지 않으신다. 물론 하나님이 성령으로 바로 역사하셔서 믿으면 되지만, 시대마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부르시는 것이 좀 다른 것 같다. 내가 중학교에 들어가서 중학교 2학년 세계사 강의를 보았는데, 세계사 강의인데, 십자군 전쟁 같은 개념을 설명할 때 전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방향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천주교가 천 년 동안 잘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천주교에서는 1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주장하지만, 역사적으로 실제 1대 교황은 그레고리라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분이었지만, 이분이 한 것이 수도원 운동이었다. 정확한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경건운동을 하게 되니까, 율법주의가 되고, 자꾸만 뭔가 제도를 만들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은 종교다원주의로까지 오게 되었다. 그 당시 로마에서도 종교다원주의적인 것을 할 수밖에 없었다. 민족과 국가가 다 다른데, 로마에서 원하는 것은 전 세계를 팍스 로마나(Pax Romana)로 지키는 것이었다. 팍스, 즉 평화 아닌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문화, 인종,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있으면서 도로, 행정 모든 것을 다 만들어가니까 평화의 시대였다. 로마 정권이 지배하고 있는 동안이니까 해적이 없다. 해적이 출몰하면 바로 가서 때려잡으니까. 그런 평화의 시대가 몇 백 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평화가 없던 곳이 딱 한 군데 있었다. 기독교다. 박해를 받으니까. 왜냐? 기독교만은 오직 예수를 주장하니까. 어떤 종교든지 다 받아주었는데, 기독교는 오직 예수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받아들여지게 만드는데, 그게 여신숭배사상이다. 이게 마리아 숭배로 바뀌어서 기독교로 들어왔다. 그레고리 1세가 있기 전부터, 공의회에서 마리아 숭배 사상을 공인하게 되었다. 분위기가 로마의 평화, 종교통합적인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쪽 흘러오니까 너무도 성경과 멀리 떨어진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이 잘못되었으니까 바꾸자 해서 한 게 아니다. 몇 십 년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급속활자로 인한 인쇄술이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발명된다. 이분이 제일 먼저 찍은 것이 성경책이었다. 이것을 찍다 보니까 성경이 퍼져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곳곳에서,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프랑스 곳곳에서 성경을 직접 읽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어, 이거 성경하고 다르잖아?' 교황들도 보니까 너무 틀리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논하자,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하지 않느냐'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보니까 교회가 정교일치가 되어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마녀사냥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가. 종교의 이름, 십자가의 이름으로 죽이고 전쟁하고 이긴 아니지 않나.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을 했더니, 너무 오래된 천주교의 시스템 안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다. 우리도 결국 시대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끊임없이 개혁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상한 쪽으로 간다. 이 지식이, 역사와 교육이 후대를 살리지 않는다. 배설물같이 되어 버리고, 후대를 죽이게 된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그렇게 많은 지식이 넘나들고 있는데, 성도들이 굉장히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바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많은 다른 것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정확히 이야기를 듣고 바르게 알게 되도록,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풀어 주어야 한다. 그렇게 돌을 제거하고, 제자양육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복음편지, 새생명새생활 같은 것을 교육시켜야 뿌리내릴 수 있다. 그리고 성경도 읽어야 한다. 할 일이 너무 많다. 비쁘다. 나도 하루에 세 시간 씩 성경을 읽으

려고 하는데, 시간이 참 없다. 현장도 가고 설교준비도 하고 성경도 읽고 해야 한다. 그래도 이 모든 시간이 누리는 시간이다. 힘들지 않다. 행복하고 누리고 감사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강단, 성경말씀이다. 여기에서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서론 : 강단메시지

나는 솔로몬을 두고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솔로몬이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도 결국 실패했지 않나. 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겠나? 솔로몬이 1년에 거둬들이는 세금 수입이 금으로 666달란트 정도 되었다. 한 달란트가 금으로 30kg이다. 그러면 666달란트는 지금 돈으로 몇 조 원에 해당되는 것이다. 1천 명의 첩이 있었는데, 지교회에서 이 메시지를 했더니, 어떤 분은 솔로몬에게 그렇게 천 명이나 첩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했다. 여자를 마냥 좋아해서라기 보다는, 그런 정략결혼을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이야기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바빴다. 책도 쓰고 연구도 하면서 많은 일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오래 살지 못했다. 19-21살 정도에 왕이 되었는데,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으니, 대략 60세 전후로 죽었다는 말이다. 더 짧게 계산하면 50대 초반이다. 길지 않은 생애 동안 1천 명의 후궁이 있었다고 하면, 솔로몬의 결혼은 수백 개의 나라와 정략결혼을 했다는 이야기이다. 그런 외교 일에도 7년의 성전 건축, 13년의 궁전 건축까지 해야 했다. 그만큼 능력이 뛰어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왜 실패했는가? 성경을 읽어 보니까 결론이, 솔로몬이 나 닮았처럼 되지 말고, 솔로몬, 닮ित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었다. 돈 때문에, 왕이라는 자리 때문에, 처음 믿음, 첫사랑을 버리지 말라는 것이었다. 닮은 간음, 살인, 전쟁이라는 큰 죄를 지었지만 회개를 했는데, 솔로몬은 큰 잘못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 명 한 명씩 부인들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다. 마음이 착하니까, 성전 지은 그 기술을 가지고 부인들에게 우상의 산당을 만들어 준 것이다. 타지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부인들이니까 종교생활이라도 잘 하라고 밀어준 것인데, 결국 이것이 실패를 가져온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 죽음이 아니면 창3장 문제,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돌아가신 것이다. 죄, 사단,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많은 종교가 틀렸다.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그들은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아니다. 싸우라는 게 아니다. 빛을 발하라는 것이다. 요셉처럼,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핍박을 받고 죽으면서도, 열 명의 황제가 250년 동안 핍박했어도 복음을 전하고 살려냈지 않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무엇이었던가? 천 명의 첩이 있었다. 인간적인 평화, 다원주의가 문제가 되었다. 프리메이슨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그 원조가 성전을 지은 사람이다. 그들이 두로 사람이었다. 두로 왕 히람이 사람을 보냈다. 모든 기술을 제공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 사람의 속마음은 달랐다. 성경에 보면 사단을 두로 왕에 비유했다. 그러니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서 성전을 짓고 나서 망해 버린다. 솔로몬이 지켜야 할 것은 성전, 언약궤가 아니었다.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렸지만, 정확한 창3:15의 복음은 몰랐다. 그러니 다른 종교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망각했다. 총리가 되고서도 요셉은 미션을 잊지 않았지만, 솔로몬은, 왜 하나님이 자신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시고 세계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오는지 이유를 몰랐다. 그래서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조공을 받았다. 이 평화가 평화가 아니었다. 나중에 분열이 오게 되었다. 복음 전파의 미션을 놓쳤기 때문이다. 솔로몬이 실패한 이유가, 집중을 잘못 했다. 이웃 나라와의 평화, 인간관계, 건축, 취미생활에 집중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 우리의 주업은 일이 아니다. 예수 제자 되는 것이다.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 핵심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다. 초대교회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그 분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환경도 시간도 장소도 문제가 아니다. 류목사님은 전도에 대해서 평신도에게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주유소에 들렀는데, 기름을 넣는 그 짧은 시간에 직원과 잠깐 이야기를 하더니, 그 2-3분 후에 따로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더라는 것이다. 나도 그런 일이 많다. 호떡집에서 몇 마디 하다가 영접시키고 그랬다. 제일 창피한 때는 목욕탕에서였다. 조선족 청년이 괜히 피부 좋다고 칭찬을 하고, (웃음) 그런데 이 사람이 천주교 이야기를 막 하니까 불이 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깨벗고 영접기도를 같이 한 것이다. (웃음) 우리가 시간, 환경, 조건과 상관없이,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 어디에서든지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나는 명진 보육원 친구들을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있는데, 부작용이 생겼다. 뭘만 필요하면 나한테 연락해서 뭘 달라 하는 것이다. 이 친구들에게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한 적이 없다. 필요한 것을 해 줬을 뿐이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못 할 말도

나한테 한다. 이렇게 하니가 편안하게 문이 열렸다. 어릴 때 진도할 때도 그랬다. 진도하기 위해서 오렝 사주고 순대 사주면서 투자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시대적인 사명자는 복음만 전했는데 바로 받고 교회화된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많지 않다. 시간이 걸려서 사랑이 전달되면 단계적으로 전도가 된다. 우리 삶이다. 나는 그래서 집중훈련하고 하는 것이 마음에 크게 들지는 않는다. 삶 속에서 되어지는 것인데, 하도 안 되니까 집중을 하는 것이다. 사실은 그렇게 스트레스받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되어져야 한다. 넘치면 나중에 나오게 된다. 자기가 아는 것은 얼마든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생전 모르는 사람 둘이 너무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게임 이야기더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충분히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솔로몬은 정말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지 않고 세상 것에 집중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전도, 선교다. 마12장에 보니까 일곱 귀신 이야기가 나온다. 이게 솔로몬의 상태였다. 결국 7배 이상으로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24시간 계속 복음 전하고 3오늘을 해야 하는데, 최목사님이 오늘 하신 메시지에서 내가 딱 붙잡은 게 있다. 1부예배 때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가 다 죄를 짓는데, 악한 생각과 마음을 1초도 끊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악하고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솔로몬은 이 사단의 역사를 몰랐다. 다윗을 강하게 넘어뜨렸더니 회개해 버리니까, 사단이 전략을 바꿔서 솔로몬을 서서히 공격해 들어온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해야 한다.

1.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가?

창세기 3장, 원죄 때문이다. 죄 문제다. 그런데 이 창3장을 우리가 왜 자주 말하는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문제가 이 창3장에서 다 나왔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에덴동산으로 돌아갔다고 치자. 선악과를 따먹겠는가 안 따먹겠는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 선악과인데,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따먹고 있지 않나? 내 뜻대로 살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미워하고 정욕을 탐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셨겠는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아셨겠는가 모르셨겠는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왜 그럴 것을 몰랐겠는가. 나도 우리 아이들이 방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알고 있다. 우리도 조금 아는데. (웃음) 그러나 선악과가 꼭 필요하다. 뭐든지 다 순종하면 로봇이지, 인격이 아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해서 해결책을 준비하신 것이다.

- (1) 창2:17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 (2) 롬3:10, 23 이 땅에 의인은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 (3) 요8:44 죄 때문에 마귀의 손에 잡혀 있다.
- (4) 롬8:2 이런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 (5) 롬5:8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 죄가 없으신 분이 대신 죽어야 죄가 해결되기 때문이다.

2. 예수님의 죽으심의 결과는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이다. 왜 대신하는가? 스스로는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 할 수 없다. 대신할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 이게 은혜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은총론을 말했다. 어거스틴은 17살 때부터 창녀와 동거를 시작했을 만큼 타락한 존재였다. 그런데 이런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은 사실 칼빈이 세운 교리는 아닌데, 칼빈의 제자들이 네덜란드에서 정리한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하게 하신 것이다. 로마 가톨릭은 이 원죄의 의미를 모르니까 너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왜 오직 예수인지 제대로 의미를 알아야 한다.

- (1) 고후 5:21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 (2) 히9:28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
- (3) 히10:10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 (4) 벧전3:18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매일같이 주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 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계속 누려야 한다. 마귀는 우리를 영적인 것에서 육신적인 것으로 계속해서 끌고 간다는 사실을 알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 다 나쁘다는 게 아니다. 그러나 가치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대기업 총수가 되어도 그게 배설물로 보아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가치다. 우리 램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나의 본업은 국회의원이 아니다. 마케팅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가 아니다. 하나님을 누리며 말씀을 포럼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3.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비밀이 무엇인가?

- (1) 요일3:8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 (2) 요14:6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을 만드셨다.
 - (3) 롬6:6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신 것이다.
- 한 마디로 말해서 왕, 선지자, 제사장의 비밀이다. 남편 하나를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데,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만나야 되겠는가. 복음은 십자가를 놓고 목상하는 것이다. 복음적으로 가는 것은, 죄는 그 사람이 지었는데 벌은 내가 담당하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의 의미다. 십자가 신앙이 없으면 십자가 정신이라도 좀 가져야 한다. (웃음) 가정 안에서 실천하시기 바란다. 교회 안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4. 구약의 예언적 의미

- (1) 창3:15 죄를 범하게 한 장본인 마귀를 멸하려 오실 예수님을 예언했다.
 - (2) 창4:1~9 피의 제사를 받으셨다.
 - (3) 유월절 어린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 (4) 요8:56 아브라함도 오실 메시야를 믿고 구원 받았다.
-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두고 분명히 언약을 주셨다는 것이다. 이것이 확실하게 성취되었다.

5. 신약의 성취적 의미

- (1) 마1:23(동정녀 탄생) - 죄 없는 몸으로 오심
- (2) 마3:16~17(성령 임하심) - 하나님의 아들
- (3) 마3:2(천국 임재)
- (4) 요1:14 -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

6.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길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축복에 우리가 참여하고, 이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방법이 뭔가?

- (1) 갈2:20이다. 바울은 말했다. "내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지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전에 내게 무익하던 게 아니라 유익하던 것을 나는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좋은 것을 오히려 조심할 줄 알아야 한다.
- (2) 고전10:30, 이제부터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우리는 아무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성도들이 응답받은 것, 우리가 응답받은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자기 자랑으로 여기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정말 많이 돌릴 만큼 응답을 받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축복을 받으라.
- (3) 그리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다(빌3:7-14).

결론

여러분, 깊이 목상을 해 보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목상해야 하는가? 그리스도를 깊이 목상해야 한다. 나는 한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러하다고 생각했다. 이분은 아침마다 십자가를 한 시간 동안 목상한다고 한다. 자신의 가시를 두고 다 목상한다고 한다. 내 죄 하나하나 때문에 주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셨다. 내 손과 발로 지은 죄로 인해 손과 발에 못 박혔고,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창에 찔리셨으며, 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체찍에 맞으시고, 우리의 혈기를 대신 하여 모든 피를 쏟으셨다. 그리고 다 이루셨다. 믿지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어떤 자리, 어떤 환경에서 언제라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한다.